

페퍼스, 기업은행 잡고 11연패 탈출 '매운맛' 보일까



프로배구 V리그 4라운드 시작



30일 광주 홈에서 기업은행 상대 분위기 반전 기대
31일 연승 멈춘 흥국생명, 현대건설과 1·2위 '빅매치'

2023-2024 V리그의 4라운드가 시작했다. 6라운드까지 전개되는 시즌의 반환점을 돈 만큼 각 팀들의 한층 더 치열한 경기가 예상된다.

27일 현대건설은 10연승을 저지한 IBK기업은행과 4일 만에 리턴매치를 펼친다.

현대건설은 지난 23일 기업은행과의 3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2-3으로 패하며 연승을 '9'에서 멈췄다. 기업은행은 직전 경기의 흐름을 이어 현대건설을 잡고자 하고, 현대건설은 연패를 막자는 각오다.

28일에는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이 맞붙는다.

지난 24일 진행된 3라운드 맞대결에서는 현대캐피탈이 셋아웃 승리를 거뒀다. 아흐메드-전광인-허수봉 트리오가 각각 서브득점 하나씩을 포함해 23, 13, 12득점을 올리며 활약했다. 한국전력에서는

는 서재덕-타이스-임성진 트리오가 각각 11득점을 올렸지만 파괴력이 떨어졌다. 세 선수의 공격 점유율도 각각 24.1%, 27.7%, 25.3%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국전력의 트리오가 경기력과 서브 킷을 끌어올려 팀을 승리로 이끌지, 다시 한번 현대캐피탈에 무릎을 꿇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29일에는 GS칼텍스가 전승 중인 상대 한국도로공사와 만난다.

GS칼텍스는 1·2라운드 모두 도로공사를 상대로 3-2로 승리했고, 지난 25일 크리스마스에 펼쳐진 경기에서는 3-0 완승을 거뒀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시즌 GS칼텍스전 첫승을 거두기 위해 돌고구를 찾는 중이다.

A페퍼스는 30일 오후 4시 홈에서 IBK기업은행

을 만나 연패 탈출에 도전한다. 페퍼스는 지난 22일 도로공사전에서 2-3으로 패하며 11연패를 기록했다. 페퍼스는 기업은행을 상대로 1·2라운드 모두 1-3으로 졌고, 3라운드 경기에서는 0-3패배로 고개를 숙였다. 연패 탈출이 간절할 페퍼스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페퍼스타디움에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31일에는 승점 2점 차로 나란히 1·2위에 자리한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이 '빅매치'를 연다.

1·2라운드에서는 흥국생명이 3-2로 승리했고, 3라운드에는 현대건설이 3-1로 이겼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 2승 1패로 앞선 흥국생명이 우위를 이어 1위를 탈환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2024년 1월 1일, 새해 첫날에는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이 맞대결을 펼친다.

대한항공은 한국전력과 1·3라운드 경기에서 각각 3-0, 3-1 승리를 거두면서 상대전적 2승1패를 기록했다. 다만 9승9패(승점 27)로 전반기를 마친 한국전력은 6개 팀 중 대한항공을 상대로 공격 성공률이 가장 높다.

같은 날 여자부에서는 한국도로공사와 정관장이

만난다.

정관장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1·2라운드에서 모두 졌지만, 지난 13일 3라운드 경기에서는 3-0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정관장은 이날 범실 23개를 내면서도 지아가 48.89%의 높은 공격 성공률로 22점을 쏟아부으면서 도로공사전 승리를 만들어냈다. 새해를 웃으며 시작할 팀은 누가 될지 반환점을 돈 코트에 시선이 집중된다.

한편, 한국배구연맹(KOVO)은 26일 2023-2024 V리그 3라운드 MVP를 선정했다.

남자부에서는 우리카드의 마테이가, 여자부에서는 IBK기업은행의 아베크롬비가 선정되었다. 두 선수 모두 V리그 입성 후 첫 수상이다.

마테이는 3라운드에서 188득점에 성공하는 등 득점1위를 기록하며 우리카드를 1위로 이끌었다. 아베크롬비는 3라운드 동안 178득점을 올리며 득점 1위를 기록했고, 45.01%의 공격 성공률로 공격 종합 3위, 세트당 평균 0.36개의 서브로 서브 2위에 오르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아베크롬비의 활약으로 IBK기업은행은 3라운드에서 5승을 수확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우승 안긴 양희영 '이글샷' ...올해의 샌드웨지샷

AP선정, PGA·LPGA투어 명장면
장타자 매길로이, 최고의 드라이버샷

양희영에게 상금 200만 달러가 걸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우승을 안긴 이글 샷이 AP가 뽑은 최고의 샌드웨지 샷으로 선정됐다.

AP는 26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LPGA 투어에서 나온 클럽별 명장면을 추려 발표했다.

이 가운데 양희영이 CME 그룹 투어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13번 홀(파4)에서 샌드웨지로 두 번째 샷을 때려 홀에 곧바로 볼을 꽂아 넣은 샷을 최고의 샌드웨지 샷으로 뽑았다.

이 이글 한방으로 양희영은 하타오카 나사(일본)를 제치고 단독 선두에 올라 우승했다.

AP는 양희영이 이 샌드웨지로 만든 이글 덕분에 양희영이 생애 처음으로 미국 본토에서 우승했고 무려 200만 달러의 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고의 드라이버 샷은 PGA 투어 매지플레이 2라운드 경기 때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가 18번 홀(파4)에서 때린 티샷이 뽑혔다.

그린까지 375야드인 18번 홀에서 매길로이는 강하면서도 균형 잡힌 스윙으로 볼을 그린 앞 1.2m 앞에 떨어뜨렸다.

매길로이가 스코티시 오픈 최종 라운드 18번 홀(파4)에 날린 두 번째 샷은 최고의 2번 아이언샷이 선정됐다.

맞바람에 200야드를 남기고 핀 3m 옆에 볼을 떨어뜨린 매길로이는 올해 자신의 최고 샷이라고 자평한 바 있다.

최고의 퍼트는 RBC 캐나다오픈에서 69년 만에 캐나다 선수 우승이라는 역사를 쓴 닉 테일러의 22m 이글 퍼트가 뽑혔다.

테일러는 18번 홀(파5)에서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와 벌인 4차 연장전에서 기적 같은 이글 퍼트를 집어넣어 캐나다 관중들을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렸다.

메이저대회에서도 클럽별 명장면이 쏟아졌다. 마스터스 14번 홀(파3) 버디를 끌어낸 온 람(스페인)의 티샷은 최고의 8번 아이언샷이 뽑혔다.

윈덤 클라크(미국)가 US오픈 최종 라운드 14번 홀(파4)에서 282야드를 남기고 그린에 올린 두 번



째 샷은 최고의 3번 우드 샷이 올랐다.

PGA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5번 홀(파5)에서 브룩스 켈카(미국)는 3번 아이언으로 그린을 공략해 이글을 뽑아내 최고의 3번 아이언 샷으로 뽑혔다.

켈카가 이 대회 16번 홀(파4)에서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의 추격에 찬물을 끼얹은 버디를 만들어낸 두 번째 샷은 최고의 피칭웨지 샷이 됐다.

PGA 챔피언십 최종일 15번 홀(파3)에서 출신

원을 한 마이클 블록(미국)은 최고의 7번 아이언샷의 영광을 안았다. PGA 챔피언십에서만 3차례 클럽별 으뜸 샷이 나온 셈이다.

디오픈 우승자 브라이언 하먼(미국)은 최종일 6번 홀(파4)에서 185야드 거리에서 5번 아이언으로 버디 기회를 만들었다.

최고의 5번 아이언 샷이다. 하먼은 "내가 5번 아이언으로 친 최고의 샷이었다. 그 샷으로 우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년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에서 헌신적인 활동을 보여준 강사 김기성(왼쪽부터), 김미소, 김민중(박승우 대리 수상자), 박찬영 씨가 대한체육회장상을 받은 뒤 전남도체육회 송진호 회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 체육지도자 4명, 대한체육회장상 수상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박찬영·김기성·박승우·김미소 강사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에서 열정적인 활동을 보여준 전남지역 우수 강사들이 대한체육회장상을 받았다.

전남도체육회는 26일 '2023년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의 체육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박찬영, 김기성, 박승우, 김미소 강사가 대한체육회장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및 동 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레저 활동과 체력강화 및 여가생활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이다. 박찬영 강사는 곡성스포츠클럽에서 축구, 피구 등을 지도하고 있으며, 김기성 강사는 진도아리랑스포츠클럽에서 배드민턴 지도를 하고 있다. 박승우 강사는 장성군체육회에서 학교밖 골프 지도자로,

김미소 강사는 강진군체육회에서 학교밖 볼링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4명의 강사는 주말체육을 통한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수업 방식으로 학생들의 수업참여도 및 수업의 질 제고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전남도체육회는 '2023년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에서 전국 3700개(학교안 2000개, 학교밖 1700개) 중 총 396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진행했다.

전남도체육회 송진호 회장은 "매우 흐뭇하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대한체육회 등의 각종 공모사업 실적 거양은 물론 내실화에도 철저히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박지현, 생애 첫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팬 투표 1위

여자프로농구 박지현(아산 우리은행)이 생애 처음으로 올스타 팬 투표 1위를 차지했다.

박지현은 지난 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우리은행 WON 2023-2024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팬 투표에서 가장 많은 3만2639표를 받았다. 2위인 신지현(부천 하나원큐)이 받은 3만1645표보다 994표가 많았다.

3위는 김소니아(인천 신한은행·3만1346표),

4위는 이소희(부산 BNK·3만324표), 5위는 김단비(우리은행·2만8132표)였다.

신이슬(수원 삼성생명)과 이명관(우리은행)은 각각 9위와 14위로 생애 처음 올스타로 뽑혔다.

올스타에 선정된 20명의 선수는 팬 투표 순위에 따라 핑크스타와 블루스타 팀으로 나뉘어 내년 1월 7일 충남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대결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서울의 봄
2관	서울의 봄, 도티와 영원의 탐
3관	신차원! 쟁구는 못말려 더 무비 초능력 대결전 - 날아라 수제김밥-, 노랑: 죽음의 바다, 서울의 봄
4관	노랑: 죽음의 바다,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
5관	서울의 봄, 신차원! 쟁구는 못말려 더 무비 초능력 대결전 - 날아라 수제김밥-, 류이치 사카모토: 오퍼스
6관	노랑: 죽음의 바다
9관	트롬: 밴드 투게더, 3일의 휴가
7관 싸투룸	노랑: 죽음의 바다, 신차원! 쟁구는 못말려 더 무비 초능력 대결전 - 날아라 수제김밥-,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 [위드카즈]버디 탈출대 옥토퍼 앤 비온드: 버드, 옥토퍼를 울리래
8관 싸투룸	노랑: 죽음의 바다,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380회 정기연주회
2024 신년음악회 Festival
일시: 2024-01-16(화) ~ 2024-01-17(수) 19:30
장소: 전남대학교 연주마루
문의: 062-613-8241

GAC 공모전시 김선희 개인전 (my little hero)
일시: 2023-12-01(금) ~ 2023-12-31(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062-613-8357